

읽기과제를 통한 5 - 9세 아동의 연음규칙 인식에 대한 연구

이 은 선 · 석 동 일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이은선·석동일. 읽기과제를 통한 5 - 9세 아동의 연음규칙 인식에 대한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2006, 제11권, 제1호, 108-120. 이 연구에서는 읽기과제를 통하여 5;0 - 9;11세의 정상아동 총 120명을 대상으로 연음규칙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연음규칙에서 종속적 모음이 중요한 변인이 되므로 아동의 언어발달 연령을 고려하였다. 또 연음규칙에 대한 인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와 격조사의 종류, 음절수 및 음소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았다. 검사도구는 연음규칙이 적용된 64개의 문장을 이용하였고, 자료분석은 표준 발음법 제 13항 및 14항을 기준으로 형태소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5세 아동의 연음규칙 인식이 6 - 9세 아동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동일 연령 내에도 개인차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자소·음소 대응이 불일치하는 /s/가 포함된 단어에서 많은 오류가 나타났다. 7 - 9세 아동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읽기과제를 통한 연음규칙 인식은 7세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연음규칙에 대한 연령별 발달을 보여주는 근거자료가 되고 있으며 연음규칙 지도 시 자소·음소 대응규칙에 대한 지도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결론적으로 연음규칙에 대한 지도는 음운인식이 이루어진 후 초기 읽기가 시작되는 5세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소·음소 대응규칙에 대한 지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핵심어: 연음규칙, 읽기과제, 종속적 모음

I. 서 론

연음규칙이란 어말종성자음이 종속적 모음(조사, 어미, 접미사, 내용어)에 이어져 첫소리로 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 홀받침이 연음될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져 발음되나, 겹받침이 연음될 경우에는 뒤에 있는 자음만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서 발음된다. 이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연음규칙은 기초적인 문법지식을 요구하므로 어린 아동은 조사, 어미, 내용어와 결합하는 구(phrase) 또는 문단(paragraph) 수준의 문장읽기에서 어려움이 수반될 수 있다.

우리는 단어 하나만으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잘 전달할 수 있을 때가 있으나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단어 몇 개가 결합된 문장을 주고받으며 의사소통을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어를 제대로 발음하기 위해 단어 하나하나의 발음을 정확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어와 단어 사이에 일어나는 음운변화를 익혀 발음하는 것이 필요하다(최혜원, 2004). 어린 아동의 발음 지도 시 개념이 쉽고 먼저 발달하는 것부터 가르치며,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고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또한,

발음습득 시 음운규칙에 대한 이해에 중점을 두고 기초적인 음운규칙에서 시작하여 기타 음운변화에 대한 발음규칙을 지도하여야 한다. 이때 지도 시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규칙이 연음규칙이다.

국립국어원의 연구에 의하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그렇지 않은 단어에 비해 빠르게 발음된 비율이 높았으며, 명사와 호격 조사가 결합될 때 발음 오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예; 부엌아[부어가], 무릎아[무르바]). 특히 어말종성자음이 /ㄷ/로 끝나는 경우 비표준 발음으로 한 사례와는 달리(예; 햇빛을[헨삐츨], 꽃을[꼬츨]), /ㅍ/, /ㅌ/로 끝나는 경우 연음규칙이 적용된 표준 발음으로 발음한 사례가 응답자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예; 옆으로[여프로], 걸을[거틀]). 이러한 결과는 방언 및 습관적 발음의 오류로 해석될 수 있으며 언어발달 초기 발음이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이 듣기를 할 때 어려워하는 문제 중의 하나는 음절 단위에서 잘 들리던 단어도 연속적인 발음에서는 혼돈이 생긴다는 것이다. 특히 한글은 표기와 발음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기초적인 문법 및 올바른 음운론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아동은 4, 5세가 되면 기초적인 음운론적 규칙을 습득하며 음소의 발음과 억양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된다(이현진·박영신·김혜리, 2003). 이 시기에는 “경차니가로보트를사씨”와 같은 연속적이고 긴 대화의 흐름 속에서 낱말이 연결되어 있는 문장을 구성하는 음운론적 규칙을 터득하여 낱말을 하나하나 분리해 내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그러나 문자에 노출이 되지 않은 어린 아동의 경우 자연스럽게 연음하여 발음하다가, 문자에 노출된 초기에는 연음시키지 않고 음절 단위로 끊어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초기문법 습득이 불완전하여 연음규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결과로 사료된다. 이때 연음규칙을 이해하기 전에 읽기에 선행되어야 할 조건으로 글자와 말소리의 대응관계 즉, 음운인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문자습득 초기에 있는 아동은 연음규칙에 대한 인식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 이은선·유선미·석동일(2005)은 초등학교 저학년(1, 2학년)에서 문장을 읽을 때 어말종성자음을 연음시키지 않고 음절 단위로 끊어서 읽는 불파화 현상을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한 토박이 화자가 학교 교육을 통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획득한 언어능력을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언어능력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박광일, 2002).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5 - 9세 아동의 연음규칙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음절수를 고려하였고, 어말종성자음을 /ㄱ/, /ㄴ/, /ㄷ/, /ㄹ/, /ㅁ/, /ㅂ/, /ㅅ/로 구성된 단어를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처소격조사, 도구격조사와 결합하여 어절 내에서 살펴보았다. 이은선·석동일(2005)의 연구에서 초등학교생의 연음규칙 인식수준을 종성 자음이 중화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발음되는 독립단어와 문장 내 단어 수준에서 살펴보았으나 단어 수의 제한점이 있어,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언어환경(조사, 음소, 음절수)을 고려하여 어절 내에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읽기과제를 통하여 5 - 9세 아동의 연음규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연음규칙에 대한 지도를 필요로 하는 시기와 지도 시 고려하여야 할 언어환경 요소를 제시하는데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사는 3 - 4세 경까지 습득(조명환, 1982; 김영태, 1994)되며, 특히 주격, 목적격, 처소격, 도구격은 5세 이전에 발달한다고 보고하였다(이은경, 1999). 윤혜경(1997)에 의하면 한글의 읽기는 받침이 없는 민글자에 대해 음소와 자소의 대응이 가능해지는 5세 경이며 받침 자는 6세, 안 쓰는 글자까지 읽을 수 있는 완성 시기는 초등학교 2학년 정도에 가능하다고 보았다. 윤성혜(2003)는 읽기에서 음운해독이 숙달되고 덩이글의 의미파악은 초등학교 2학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였으며, Lee, Seok & Jeong(2005)은 연음규칙에 대한 인식이 초등학교 3학년에 완성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 연구대상 아동의 연령은 읽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5세에서부터 덩이글 읽기의 의미이해가 중요한 9세 아동까지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읽기과제를 통하여 연음규칙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생활연령 만 5세 아동 24명(남 12명, 여 12명, 평균 나이: 5세 5개월), 6세 아동 24명(남 12명, 여 12명, 평균 나이: 6세 6개월), 7세 아동 24명(남 12명, 여 12명, 평균 나이: 7세 5개월), 8세 아동 24명(남 12명, 여 12명, 평균 나이: 8세 8개월), 9세 아동 24명(남 12명, 여 12명, 평균 나이: 9세 5개월), 총 120명(남 60명, 여 60명, 범위: 5세 0개월 - 9세 11개월)으로 하였다.

대상아동은 첫째, 유치원 교사, 학교 담임교사와 부모가 인지적·정서적·조음적 결함이 없다고 보고된 아동, 둘째, 읽기에 어려움이 없는 아동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가. 검사도구

연음규칙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로는 연음규칙의 적용을 받는 해당조사가 어말중성자음 다 음에 오는 첫 음이 모음으로 되어있는 단어로 하였다. 주격조사 ‘이’, 목적격조사 ‘을’, 처소격조사 ‘에서’, 도구격조사 ‘으로’를 중심으로 문장을 구성하였다. 어말중성에 위치한 음소는 /ㄱ/, /ㄴ/, /ㄷ/, /ㅁ/, /ㅂ/, /ㅅ/로 하였으며, 음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음절, 이음절, 삼음절, 사음절로 구성하였다. 읽기에 사용된 문장은 총 64개로 구성하여 각 음절수마다 6개의 단어를 포함하였다.

나. 자료수집 및 절차

2005년 7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의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검사는 조용한 교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연구자와 아동이 마주앉은

상태에서 실시하였다. 자연스러운 검사상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간단한 인사 및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아동에게 검사요령에 대해 숙지를 시켰다.

읽기자료는 어미, 주격, 목적격, 처소격, 도구격조사를 무작위로 나열하여 제시하였다. 검사자는 아동의 읽기 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카드로 제작된 문장을 천천히 제시하였다.

읽기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비디오(SONY DCR-TRV27)로 녹화하고, 동시에 녹음기(TW-386)로 녹음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전사하였다.

다.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이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연구자가 제작한 도구 <부록 - 1>를 이용하여 표준 발음법 제 13항, 14항을 기준으로 형태소 분석을 하였다. 연음규칙 분석에 사용되는 검사어 <부록 - 2>는 연음규칙의 적용을 받는 어말종성자음이 포함된 조사(주격, 목적격, 처소격, 도구격)와 어미로 구성된 문장으로 하였다. 추상명사는 제외하였다.

표준 발음법 제 8항에서는 7종성 자음으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이 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ㄷ/의 단어의 수가 제한되어 있고, 종성자음으로 /ㅇ/이 올 경우 연음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제외하였다. 옷을[osil]에서와 같이 음소 /ㅅ/는 연음규칙 적용 시 /ㅆ/로 발음될 수 있으므로 이 연구에 포함하여 /ㄱ/, /ㄴ/, /ㄷ/, /ㄹ/, /ㅁ/, /ㅂ/, /ㅅ/로 구성된 문장을 사용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음소와 일치된 문장번호를 <부록 - 2>에 제시하였다.

총 64개의 문장에 포함된 92개의 단어를 어절 단위로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임상경력 5년 이상이며 1급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관찰자 2인과 연구자를 포함하여 총 3명이 참여하였다. 검사자 간 신뢰도는 96 %였다.

라. 자료처리

5 - 9세 아동의 연음규칙 인식에 대해 읽기과제로 얻어진 자료를 연령에 따른 차이, 언어환경에 따른 차이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언어환경에 따른 차이에서는 조사, 음소, 음절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조사에 포함된 단어 수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도구격 조사, 어말종성자음 /ㄹ/에 포함된 단어 5개를 환산하여 점수 처리하였다. 환산처리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도구격 조사의 점수(개)} = 5 : 1 = 6 : x$$

$$\text{/ㄹ/의 점수(개)} = 12 : 1 = 16 : x$$

자료처리는 SPSS 10.0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연령에 대한 차이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조사, 음소, 음절수에 대한 차이는 반복측정을 하였다.

Ⅲ. 연구결과

이 연구에서는 읽기과제를 통하여 5 - 9세 아동을 대상으로, 연음규칙 인식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성별 및 지역 간 편차를 고려하였으나, 예비분석에서 성별 및 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연령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읽기과제를 통한 5 - 9세 아동의 연령에 따른 연음규칙 인식 비교

읽기과제를 통한 5 - 9세 아동의 연령에 따른 연음규칙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 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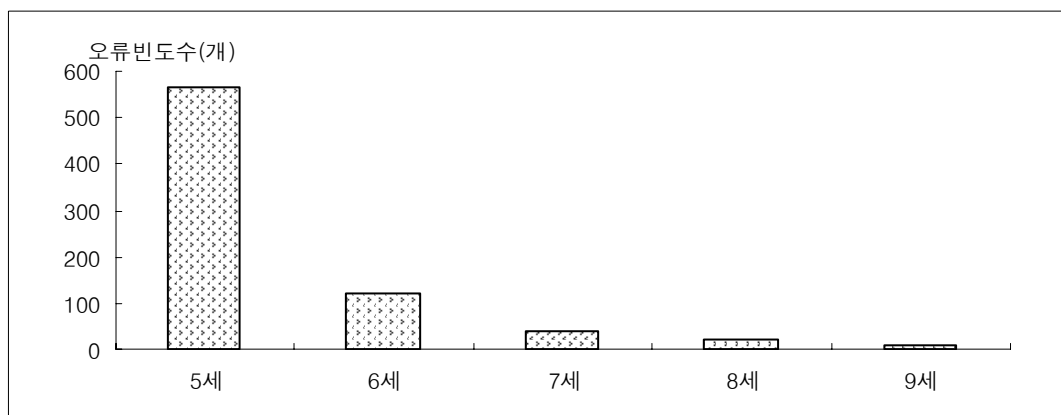
<표 - 1> 연령에 따른 5 - 9세 아동의 연음규칙 인식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연령	9368.617	4	2342.154	17.631***

*** $p < .001$

<표 - 1>을 살펴보면 연령에 따른 5 - 9세 아동의 연음규칙 인식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_{(4, 115)} = 17.631, p = .000$). 연령에 따른 평균을 살펴보면 5세 68.42, 6세 87.17, 7세 90.46, 8세 91.25, 9세 91.71로 나타났다.

5 - 9세 아동의 연령에 따른 연음규칙 인식에 대한 차이를 오류 빈도로 살펴보았으며 <그림 - 1>에 제시하였다.



<그림 - 1> 연령에 따른 5 - 9세 아동의 연음규칙 인식에 대한 오류 빈도 비교

<그림 - 1>에서 연령에 따른 연음규칙 오류 빈도수가 높은 순서로 살펴보면 5세, 6세, 7세, 8세, 9세로 나타났다(연령 당 총 오류 가능 빈도 수; 24명 × 92개 = 2208개). 이때 5세와 6세의 오류빈도수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으며, 7세에서 9세까지의 오류 빈도수는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읽기과제를 통한 5 - 9세 아동의 언어환경에 따른 연음규칙 인식 비교

가. 조사(주격, 목적격, 처소격, 도구격)에 따른 비교

5 - 9세 아동의 조사에 따른 연음규칙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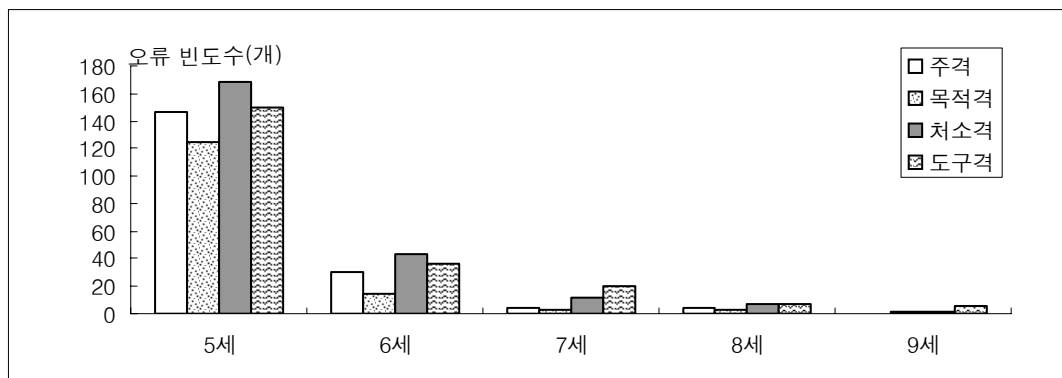
<표 - 2> 조사에 따른 5 - 9세 아동의 연음규칙 인식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조사	51.699	3	17.233	14.005***
조사 × 연령	39.074	12	3.256	2.646**
연령	2424.591	4	606.148	16.656***

** $p < .01$, *** $p < .001$

<표 - 2>를 살펴보면 조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_{(3, 113)} = 14.005, p < .001$), 각 연령에 따른 효과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F_{(4, 115)} = 16.656, p < .001$). 또한, 조사와 연령 간에 상호작용($F_{(12, 345)} = 2.646, p < .01$)이 나타나 아동의 연령이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평균을 살펴보면 주격은 22.47, 목적격 22.88, 처소격 22.03, 도구격 22.17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른 5 - 9세 아동의 연음규칙 인식에 대한 오류 빈도 차이를 <그림 - 2>에 제시하였다.



<그림 - 2> 조사에 따른 5 - 9세 아동의 연음규칙 인식에 대한 오류 비교

<그림 - 2>를 살펴보면 조사에 따른 5 - 9세 아동의 연음규칙 인식은 처소격에서 가장 많은 오류를 나타내었으며 습득 순서는 목적격, 주격, 도구격, 처소격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영태(1994)의 3세에서 4세 경까지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도구격 조사, 처소격 조사가 습득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나. 음소(/ㄱ/, /ㄴ/, /ㄹ/, /ㅁ/, /ㅂ/, /ㅅ/)에 따른 연음규칙 인식 비교

음소에 따른 5 - 9세 아동의 연음규칙 인식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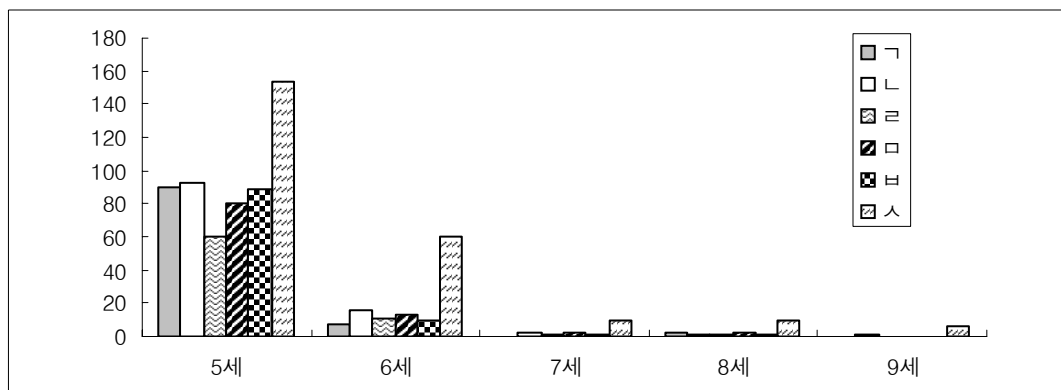
<표 - 3> 음소에 따른 5 - 9세 아동의 연음규칙 인식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음소	143.4	5	28.68	20.99***
음소 × 연령	83.64	20	4.182	3.061***
연령	2917.687	4	405.887	15.998***

*** $p < .001$

<표 - 3>을 살펴보면 음소에 따른 5-9세 아동의 연음규칙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_{(5, 111)} = 20.99, p < .001$). 또한, 음소와 연령 간에 상호작용($F_{(20, 300)} = 3.061, p < .001$)이 나타나 연음규칙 지도 시 연령이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평균을 살펴보면 /ㄱ/ 15.18, /ㄴ/ 15.04, /ㄹ/ 15.183, /ㅁ/ 15.18, /ㅂ/ 15.12, /ㅅ/ 13.95로 나타났다.

음소에 따른 5 - 9세 아동의 연음규칙 인식에 대한 차이를 <그림 - 3>에 오류 빈도로 제시하였다.



<그림 - 3> 음소에 따른 5 - 9세 아동의 연음규칙 인식에 대한 오류 비교

<그림 - 3>을 살펴보면 음소에 따른 5 - 9세 아동의 연음규칙 인식은 /ㄹ/, /ㄱ/, /ㅇ/, /ㅁ/, /ㅂ/, /ㄴ/, /ㅅ/의 순서로 나타났다. 5세의 아동의 오류형태는 80 % 이상이 어말종성자음을 불과음으로 발음하였으며, /ㅅ/를 [ㄷ]로 대체하여 발음하였다. 이는 /ㅅ/가 자소·음소대응이 불규칙한 대표적인 음소로써 어말종성자음에 위치할 경우 대표음 /ㄷ/로 평소에 발음하는 자소로 발음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7 - 9세의 아동은 음소대치는 있었으나 연음규칙이 적용된 읽기를 하였다.

다. 음절수(일음절, 이음절, 삼음절, 사음절)에 따른 연음규칙 인식 비교

음절수에 따른 5 - 9세 아동의 연음규칙 인식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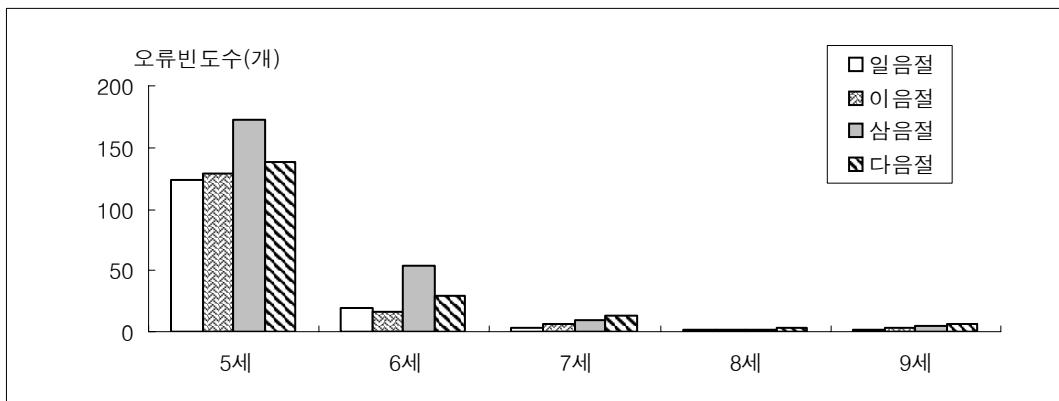
<표 - 4> 음절수에 따른 5 - 9세 아동의 연음규칙 인식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음절수	39.09	3	13.03	13.529***
음절수*연령	49.879	12	4.157	4.316***
연령	2306.3	4	576.576	17.485***

*** $p < .001$

<표 - 4>를 살펴보면 음절수에 따른 5 - 9세 아동의 연음규칙 인식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_{(3, 113)} = 13.529, p < .001$). 또한, 음절수와 연령 간에 상호작용($F_{(12, 299)} = 4.316, p < .01$)이 나타나 아동의 연령이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평균을 살펴보면 일음절 21.75, 이음절 21.7, 삼음절 21.03, 사음절 21.41로 나타났다.

음절수에 따른 5 - 9세 아동의 연음규칙 인식에 대한 오류 빈도 차이를 <그림 - 4>에 제시하였다.



<그림 - 4> 음절수에 따른 5 - 9세 아동의 연음규칙 인식에 대한 오류 비교

<그림 - 4>를 살펴보면 음절수에 따른 5 - 9세 아동의 연음규칙 인식에 대한 오류빈도가 높은 순서를 살펴보면 삼음절, 사음절, 이음절, 일음절이었다.

일음절에서 옷이[osi] 10 %, 빗으로[piširo] 9.2 %의 가장 높은 오류빈도율을 나타내었고, 이음절에서 버섯으로[pəsəsiro] 20 %의 오류율을 나타내었다. 삼음절에서 트럼펫에[tirəmpʰese] 30.8 %, 트럼펫으로[tirəmpʰesiro] 23.3 %, 트럼펫이[tirəmpʰesi] 20 %, 트럼펫을[tirəmpʰesil] 18.3 %의 오류율이 나타났으며 사음절에서 가장 많은 오류율을 나타낸 단어는 유리그릇에[jurigirise] 17.5 %, 송이버섯으로[soŋibəsəsiro] 13.3 %였다.

I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읽기과제를 통하여 5 - 9세 아동의 연음규칙 인식을 알아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읽기과제를 통하여 5 - 9세 아동의 연음규칙 인식을 연령(5세, 6세, 7세, 8세, 9세)에 따른 차이로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5세와 6세 연령 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연음규칙에 대한 오류는 6세에 현저하게 줄어드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7 - 9세 아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7세(초등학교)부터 연음규칙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읽기과제를 통하여 5 - 9세 아동의 연음규칙 인식을 언어환경에 따른 차이로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조사(처소격, 주격, 목적격, 도구격)에 따른 차이에서 연령 간 상호작용이 나타남으로써 조사 사용은 연령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목적격, 주격, 도구격, 처소격의 순서로 습득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목적격과 주격은 연음규칙이 적용되는 읽기가 시작되는 5세 경부터 습득되기 시작하며, 도구격은 연령이 증가하여도 지속적인 오류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도구격이 가장 늦게 발달한다고 해석된다.

어말종성에 위치한 음소(/ㄱ/, /ㄴ/, /ㄹ/, /ㅁ/, /ㅂ/, /ㅅ/)에 따른 차이로 살펴본 결과 /ㄹ/, /ㄱ/, /ㅁ/, /ㅂ/, /ㄴ/, /ㅅ/의 순서로 발달하였다. 특히 많은 오류를 나타낸 단어는 트럼펫[tʰirəmpet¹]이었다. 이는 어말종성자음 /ㅅ/가 자소·음소 대응이 불일치하는 음소이고, 이 단어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저 빈도 단어이므로 어린 아동의 경우 의미에 대한 이해 부족의 결과로 사료된다.

음절수(일음절, 이음절, 삼음절, 사음절)에 따른 차이로 살펴본 결과 연령 간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사음절보다 삼음절에서 더 많은 오류 빈도가 나타남으로써 일상생활에 익숙하게 사용되는 유·무에 따른 빈도 차이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볼 때 연음규칙 인식은 음절수가 읽기과제에 어려움을 준다기보다는 아동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읽기과제를 통하여 5 - 9세 아동의 연음규칙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것으로, 그 결과

연음규칙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동의 연령이 고려되어야 하며, 초기 읽기가 시작되는 5세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어린 아동의 경우 동일 연령 내에도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 개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었다. 또한 /ㅅ/에서 많은 오류가 나타나 자소·음소 대응규칙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를 필요로 함을 알 수 있었다. 읽기는 인지발달 및 사회성발달에도 영향을 주므로 조사 및 음소발달에 대한 연령을 고려하여 먼저 습득되는 것을 우선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김영태(1994). 『구어·언어 진단검사』. 대구: 한국언어치료학회.
- 박광일(2002). 초등학교 국어지식(문법) 교육을 위한 수준별 탐구학습 방법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상규(2003). 한국어의 형태론적 이해. 『언어·청능장애 겨울연수회』. 서울: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 윤성혜(2003). 초등 2년 아동의 읽기능력과 언어 및 읽기관련 요인의 관계.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이학석사학위논문.
- 이은경(1999). 2-4세 유아의 격조사 발달에 관한 연구. 『언어치료연구』, 8(2), 131-153.
- 이은선·유선미·석동일(2005).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읽기를 통한 연음규칙 인식수준 비교.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6(2), 105-115.
- 이은선·석동일(2005). 초등학교 학생의 연음규칙 인식수준 비교. 『음성과학』, 12(2), 109-120.
- 이현진·박영신·김혜리(공역)(2003). 『언어발달』. 서울: 시스마프레스.
- 윤혜경(1997). 아동의 한글 읽기발달에 관한 연구: 자소-음소 대응규칙의 터득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명한(1982). 『한국 아동의 언어획득 연구: 책략모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혜원(2004). 단어와 단어 사이에 나타나는 발음 현상. 『새국어소식』, 76.
- Lee, E. S., Seok, D. & Jeong, O.(2005). Comparison of the awareness level of the prolonged sound rules in elementary students.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municating Skills of Intention*. Japan: Kyushu University.

<부록 - 1> 읽기 문장

번호	제시 문장	번호	제시 문장
1	손가락으로 밥을 먹어	33	구름에 연이 걸렸어
2	종이컵으로 물을 마셔	34	옷을 입어
3	눈에서 눈물이 나	35	실로폰을 쳐
4	풍선껌으로 풍선을 불어	36	벽에 낙서를 해
5	뱀이 길어	37	손을 들어
6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려	38	트럼펫에 나비가 앉았어
7	수박으로 주스를 만들어	39	손가락이 작아
8	컵이 깨졌어	40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해
9	작은북을 쳐	41	얼음으로 눈사람을 만들어
10	윈두막에서 수박을 먹어	42	머리카락이 길어
11	연못에 노란 장갑이 들어있어	43	옷이 떨어졌어
12	소방관이 불을 끄러 가	44	실로폰으로 연주를 해
13	책을 읽어	45	빨랫줄에 노란 양말이 널렸어
14	떡이 맛있어	46	눈사람이 노란 장갑을 껴어
15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	47	바이올린에 나비가 앉았어
16	떡으로 케이크를 만들어	48	백화점에 바이올린이 있어
17	개미집이 작아	49	들판에 얼룩말이 서 있어
18	비눗방울을 불어	50	돈으로 아이스크림을 사
19	물에 트럼펫이 빠졌어	51	껌으로 풍선을 불어
20	기린이 트럼펫을 불어	52	버섯으로 비빔밥을 만들어
21	유리그릇에 아이스크림이 들어있어	53	엄지손가락으로 사과를 따
22	감에 새싹이 돋았어	54	콩나물을 먹어
23	아이스크림에 씨앗이 들어있어	55	실로폰에 송이버섯을 얹었어
24	장갑으로 탑을 쌓아	56	아이스크림으로 케이크를 만들어
25	옷에 송이버섯이 그려져 있어	57	미끄럼틀에 손가락이 있어
26	밥을 따고 있어	58	노란 장갑에 나비가 앉았어
27	수박에 아이스크림이 들어있어	59	노란 장갑으로 방을 닦아
28	김밥이 맛있어	60	송이버섯으로 세모를 만들어
29	툽으로 김밥을 잘라	61	별집에 별이 날아와
30	빗으로 머리카락을 빗어	62	컵에 노란 우산을 넣었어
31	씨앗을 뿌려	63	유리컵에 얼음이 들었어
32	바늘에 실을 꿰어	64	트럼펫으로 연주를 해

<부록 - 2> 연음규칙 분석용 단어

음절수	주격	부록1 문장 번호	목적격	부록1 문장 번호	처소격	부록1 문장 번호	도구격	부록1 문장 번호
일음절	떡	14	책	13	벽	36	떡	16
	연	33	손	37	눈	3	돈	50
	벌	61	불	12	물	19		
	뺨	5	밤	26	감	22	껌	51
	컵	8	탑	24	컵	62	툽	29
	옷	43	옷	34	옷	25	빗	30
이음절	새싹	22	수박	10	수박	27	수박	7
	기린	20	풍선	4	들판	49	수건	15
	눈물	3	얼굴	15	바늘	32		
	얼음	63	그림	6	구름	33	얼음	41
	김밥	28	김밥	29	벌집	61	장갑	24
	씨앗	23	씨앗	31	연못	11	버섯	52
삼음절	순가락	39	작은북	9	원두막	10	순가락	1
	소방관	12	실로폰	35	실로폰	55	실로폰	44
	얼룩말	49	콩나물	54	빨랫줄	45		
	눈사람	46	눈사람	41	백화점	48	풍선껌	4
	개미집	17	비빔밥	52	유리컵	63	종이컵	2
	트럼펫	19	트럼펫	20	트럼펫	38	트럼펫	64
사음절	머리카락	42	머리카락	30	스케치북	6	엄지손가락	53
	바이올린	48	노란 우산	62	바이올린	47	바이올린	40
	노란 양말	45	비눗방울	18	미끄럼틀	57		
	아이스크림	27	아이스크림	50	아이스크림	23	아이스크림	56
	노란 장갑	11	노란 장갑	46	노란 장갑	58	노란 장갑	59
	송이버섯	25	송이버섯	55	유리 그릇	21	송이버섯	60

ABSTRACT

Understanding of the Liaison Rule in the Hangeul Reading
among 5-to 9-Year-Old Children

Eun-Seon Lee

Dong-Il Seok

(Dept. of Speech Pathology, Daegu University)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determine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 liaison rule, by targeting 120 children aged 5 years to 9 years and 11 months by giving them reading tasks. We chose this age range because subjunctive vowels are important variables in the liaison rule of reading. This study focused on investigating the correlation between liaison rule development and age, postposition, number of syllables and phoneme. The study procedure examined 64 sentences with the liaison rule. The data analysis was based on the Pronunciation Law, clauses 13 and 14. The understanding of the liaison rule by children aged 5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by children aged 6-9. The results also showed significant variation between individuals within the same age group. In addition, children commonly made errors with the words containing the /ㅏ/ phoneme which is out of harmony with the pure Korean phonemes. Children aged 7-9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which led us to believe that the development of the liaison rule was the most active from the age of 7. These results on the development of the liaison rule according to age suggests that the rules of the Korean alphabets and phonemes should be taught before the liaison rule. In conclusion, we believe that the liaison rule should be taught at age 5 when the children begin to read and after a complete understanding of phonemes has been developed, i.e., the rules of the Korean alphabets and phonemes should be taught first.

Key Words: liaison rule, reading tasks, subjunctive vowels

▶ 게재 신청일: 2006년 1월 19일

▶ 게재 확정일: 2006년 3월 18일

▶ 이은선(제 1 저자 및 교신저자):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겸임교수, e-mail: haein14@hanmail.net

▶ 석동일(공동저자):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e-mail: diseok@daegu.ac.kr